

게이 자아 정체성에 따른 게이 의복 특성

-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를 중심으로 -

이 민 선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의류학과 교수/생활과학연구소⁺

The Characteristic of the Clothing behavior of Gay Men According to Gay Identity

- Focusing on the Drama <Queer as Folk> -

MinSun Lee · Min-Ja Kim⁺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11. 10. 24, 심사(수정)일: 2012. 1. 16, 게재확정일: 2012. 1. 18)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lothing behavior of homosexual men for identity creation. Since homosexuality has been viewed in terms of immoral, medical or social problems, gay males have made efforts to construct presentational styles in order to hide or reveal their sexual identities. Kate Schofield and Ruth A. Schmidt found that there were three different layers of individual gay identity construction expressed in clothing: shared gay identity, tribal identity, and situational identity. Using their framework, 630 gay men's outfits found in the U.S drama 'Queer as folk' were analyzed, which dealt with the lives of a group of gay men living in Pittsburgh, Pennsylvania. Findings point that gay males use their clothing effectively to express their sexual identity. Firstly, they use certain fashion items as the signifier of homosexuality on a gay community level. They use their clothing to attract the sexual partners. On tribal identity level, diverse and fragmented styles could be shown besides the effeminate style. Homosexual men's clothing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our dominate styles: the drag look, the macho look, the androgynous look and conventional look. Findings also indicate that gay males make different clothing choices for different situations in order to blend into the heterosexual or homosexual society.

Key words: gay fashion(게이 패션), gay identity(게이 자아 정체성), homosexuality(동성애), Queer as folk(퀴어 애즈 포크)

I. 서론

20세기 후반 후기 자본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 젊음, 성, 향락을 추구하는 소비사회¹⁾에서 대중매체는 동성애 문화를 다루고 있다.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는 게이들의 사랑을 다루었고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두었다. 이외 유명 미국 드라마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윌 앤 그蕾丝(Will & Grace)',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 '어글리 베티(Ugly Betty)'에서 등장한 게이들은 극의 재미를 더했다. 동성애자들만을 주인공으로 한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 '엘 워드(the L word)'등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동성애자 캐릭터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공중파 방송에도 나타났는데, 김수현 작가의 주말 가족극인 '인생은 아름다워(2010)'는 게이 커플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런 문화적 흐름을 타고 낯설기만 하던 동성애자들이 좀 더 친숙해지고 과거 동성연애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 취향으로 보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서구사회의 경우 동성애는 하나의 사회·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꿈의 시장(Dream Market Segment)'²⁾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 주체가 되고 있다. 영국의 게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남성 이성애자들보다 고학력, 높은 평균수입, 높은 가처분 소득, 높은 구매 욕구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 게이는 남성 이성애자 집단에 비해 상표와 유행에 민감하고⁴⁾ 의복 구매를 위한 쇼핑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외모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영국 BBC의 경제국은 게이 시장을 350억 파운드, 약 77조원이라고 계산하고, 이들이 쓰는 돈을 '핑크 파운드(pink pound)'라고 칭하며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⁶⁾ 패션업계에서는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톰 포트(Tom Ford)등과 같은 커밍아웃을 한 게이 패션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패션에서 게이는 패션의

창조자이자 소비자로서 큰 영향력이 끼치고 있으므로, 게이들의 의복 특성의 연구는 필요하다.

게이들의 복식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복식에 나타난 성의 연구에서 남성성, 여성성과 연관된 일부 행동으로 다루어지고 있다.⁷⁾ 이민선⁸⁾, 송명진, 채금석⁹⁾, 방수란¹⁰⁾, 서은희¹¹⁾는 남성 동성애를 남성 패션에 나타난 다원화된 성의 일부로 다루었다. 간호섭¹²⁾이나 정세희, 양숙희¹³⁾는 남성 동성애자의 연구를 세부적으로 살펴 드래그 퀸(Drag Queen)이라는 게이들의 특정 하위문화 스타일에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이정옥 외¹⁴⁾와 이은실, 이명희¹⁵⁾는 남성 동성애자의 의복태도와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게이들의 의복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아 정체성과 복식 행동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성애와 관련된 역사, 사회현상학 서적과 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로 게이들의 일반적 개념과 의복 특성을 고찰하고, 대중매체, 특히 TV드라마에 나타난 게이들의 의복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Schofield, Kate와 Schmidt, Ruth A.¹⁶⁾은 게이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형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복 선택을 살펴, 게이 자아 정체성 표현에는 여러 단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를 이론적 근간으로 하여 미국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에 나타난 게이들의 의복을 고찰하였다.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는 2000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방영된 드라마로 조연의 역할에 그쳤던 게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실제로 동성애자인 제작자와 각본가가 주시청자를 동성애자로 삼아 제작한 것으로 게이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¹⁷⁾ 이에 따라 본 드라마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게이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가 패션 광고나 컬렉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게이들의 의복을 관찰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는 5개 시즌, 83화에 걸쳐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생활과 인생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드라마 '퀴어

에즈 포크(Queer As Folk)'에 나오는 캐릭터와 상황에 따른 게이들의 의복을 고찰하는 것은 실제 게이들의 의복 특성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이에 대한 용어 정의와 동성애의 사적 고찰을 통해 게이에 대한 개념을 고찰한다.

둘째, Schofield, Kate와 Schmidt, Ruth A.의 이론에 따른 게이 자아 정체성과 의복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 사례 연구로써 미국 드라마 '퀴어 에즈 포크(Queer as folk)'에 나타난 게이들의 의복을 고찰하고 유형화하여 게이들의 의복의 특성을 도출해낸다.

본 연구의 분석은 '퀴어 에즈 포크(Queer as folk)'의 5개 시즌, 83화에 등장한 주인공들의 복식과 기타 등장인물의 복식을 컴퓨터 화면상에서 캡처한 시각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부터 6명의 주인공의 모든 의복 602점과 클럽 댄서, 연예인과 같은 기타 등장인물의 복식 28점을 더해 총 630점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게이들의 복식을 착용자, 상황, 아이템에 따라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게이 의복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게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며 남성복 자료를 축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게이 용어 정의와 일반적 고찰

1) 게이 용어 정의

Marcus¹⁸⁾에 따르면, 동성애자(homosexual)라는 것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여성이나 남성을 말한다. '호모 섹슈얼(Homosexual)'이란 단어는 1869년 카롤리 마리아 케르트베니(Karl Maria Kertbeny)가 프러시아의 반(反)동성애법 철폐를 주장했던 팸플릿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갈다(homo)'란 의미의 그리스어 단어와 '성(sex)'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게이(gay)'는 호모 섹슈얼과 비슷한 단어로 1960년대 후반부터 동성애자들이 병명처럼 들리는 호모

섹슈얼의 긍정적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며¹⁹⁾,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이라고 한다. 게이란 본래 '밝은', '낙관적인', '명랑한' 등의 뜻을 담고 있는 말로서 남성 동성애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채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다양하다. '드래그 퀸(Drag Queen)'은 특별한 행사에서 여성의 복장을 한 게이 또는 게이 바에서 여성의 흉내를 내며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게이 연예인을 지칭한다. '페어리(Fairy or Faerie)'는 여성적인 게이를 뜻하고, '퀸(Queen)'은 여성적인 게이 스스로를 부르는 단어이다. '씨시(Sissy)'는 여성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춘기 전후의 남아를 경멸적으로 부르는 단어이며, '페곳(Faggot)'은 이성애자가 남성 동성애자를 경멸적으로 비하하며 부르던 용어였으나, 오늘날 게이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이다.²⁰⁾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호모 섹슈얼과 같이 이성애자와 양성애자와 구분하여 부르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나 특별한 성향을 묘사하여 부르는 경멸적인 용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스스로가 사용하기 시작한 긍정적인 용어인 게이를 남성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선택하였다.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 동성애자, 남성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 동성애자, 여장을 즐기는 남성 동성애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개성과 취향을 소유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의복을 고찰해 보겠다.

2) 동성애의 일반적 고찰

동성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으며, 시대에 따라 용인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심하게 억압을 받았다.

고대 그리스에는 남녀 모두 원래 양성애 성향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결혼하여 자녀 생산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의 동성애를 용납하고 한발 나아가 수준 높은 남성과 미소년의 동성애를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²¹⁾

그러나 기독교의 변성한 중세 시대부터는 동성애

가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바뀌었다. 14세기 서유럽사회는 동성애를 '가장 끔찍한 범죄'²²⁾로 간주하였다. 특히, 흑사병이 창궐하여 인구가 감소한 시기에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동성애는 국가에 대한 범죄²³⁾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와 17, 18세기의 유럽 사회는 인문주의 사고와 고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성애에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였는데, 제도적으로는 엄격히 탄압했지만, 문학과 예술에서는 남성 간의 우정으로 미화하여 등장시켰다. 유럽의 자유분방한 왕족, 남자 귀족들과 같은 고위층의 동성애는 남성의 우월성과 특권을 과시로 인식되었지만 일반인의 동성애는 엄격하게 처벌되었다.

19세기 엄격한 도덕관념을 가진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 계몽주의 발달과 함께, 동성애는 탄압과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졸속한 재판 끝에 교수형이나 화형을 당하였다.²⁴⁾ 이후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사형에서 감옥형 또는 강제 노역형으로 수정되면서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처벌되었다.²⁵⁾ 19세기 말에는 의학계와 정신과 의사가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는 시각을 제시함에 따라 동성애자들은 20세기 중반까지 '별종', '성도착자', '변태성욕자',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인식되었고, 여러 가지 동성애 치료법들이 개발되었다.

20세기 전반 동성애에 대한 적대감은 국가, 교회, 경찰, 사법부 등 전통적인 제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을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악의 무리로 간주하였다. 특히 히틀러의 나치 정부는 1937년 5000명에서 1만 5000명에 달하는 동성애자들을 집단수용소에 몰아넣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세계 2차 대전 중에는 동성애자들을 생체 실험에 동원하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였다.²⁶⁾ 1950년대 전후 사회 역시 가족의 소중함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동성애자를 사회의 큰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1952년 미국 정신의학 학회(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동성애를 '사회병리학적인 성격 장애'의 하나로 발표하였고 이것이 동성애 탄압의 근거가 되었다.²⁷⁾ 따라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결성된 '마타신 소사이어티(Mattachine Society)'와

같은 동성애자 단체들은 FBI의 감시를 받았고, 동성애자들은 경찰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성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여성 해방운동'과 함께 '동성애 해방운동'이 시작되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이 잡지들이 다수 창간되었고 동성애 단체들은 '게이는 좋은 것(Gay is good)'이란 슬로건 아래 동성애 해방운동을 펼쳤다.²⁸⁾ 1969년 6월 27일 뉴욕의 게이 바 스톤월(Stonewall)에서 벌어진 경찰과 게이들의 충돌은 '스톤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데, 이후 게이 해방 진선과 같은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활발하기 일어나기 시작하였다.²⁹⁾ 그 결과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 진단 분류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과, 1981년 '세계 건강 협회(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질병(illness) 리스트에서 동성애를 제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³⁰⁾

1980년대 초반 사회 문제로 부각된 전염병인 에이즈(AIDS)가 '게이 암(cancer gay)'³¹⁾라고 불리고 동성애가 병의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반(反)동성애주의 활동이 다시 거세게 확산되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오히려 게이 공동체 내부의 연대감을 강화시켰는데, 1987년에 뉴욕에서 결성된 '액트 업(Act Up: 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 1990년에 결성된 미국 단체 '퀴어 내이션(Queer Nation)'과 영국 단체 '아웃레이지(OutRage)' 등의 동성애단체들은 동성애자의 권리를 찾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³²⁾

1980년대 말 에이즈가 동성애자가 퍼뜨린 질병이 아닌 것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지면서, 동성연애자들은 다시 사회에서 나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인, 사회·법조계 인사, 예술가, 퀸(Queen), 엘튼 존(Elton John),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등과 같은 유명 연예인,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와 같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게이는 친숙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법적 차원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을

폐지해 나가고 있는데, 1990년대의 유럽의 국가들은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은 동성애자 커플의 입장을 인정하였다. 현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고대 그리스 시대를 제외하고 동성애자는 부도덕한 존재, 정신병자,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불순한 존재, 에이즈를 퍼뜨리는 집단이라는 오해 속에서 무조건적인 탄압을 받아 왔다. 현재에도 많은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는 여전히 사회, 가족으로부터 소외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정체성 표현을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게이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좋은 도구인 의복을 이용해 슬기롭게 주류 이성애자 사회에 적응해나가고 있다. 게이 의복을 고찰하는 것은 게이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하고, 이성애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준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Schofield, Schmidt의 게이 자아 정체성 표현의 단계

20세기 후반까지 동성애라는 정체성은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대부분 억압과 핍박의 세월을 보냈다. 따라서 게이 정체성 표현은 격려, 조장되기보다는 억압, 소외되어 왔다.³³⁾ Frieta³⁴⁾에 따르면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는 존재는 이성애 중심 문화에 의해 표적이 되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게이 정체성 표현은 일반 이성애자들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같은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Schofield, Schmidt³⁵⁾ 게이들이 정체성을 표현하고 형성하는 수단으로써 의복을 사용한다고 밝히며 게이 의복 선택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게이 자아 정체성의 표현에는 여러 단계가 존재하는데, 각 단계에 맞추어 의복을 다르게 착용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하였다. Schofield, Schmidt이 밝힌 게이 자아 정체성(individual identity)의 단계는 세 가지로, 각각 공유된 게이 자아 정체성(shared gay identity)단계, 종족적인 자아 정체성(tribal identity)

단계, 상황적인 자아 정체성(situational identity)단계이다.

1) 공유된 게이 자아 정체성(shared gay identity) 단계

공유된 게이 자아 정체성(shared gay identity)단계에서 게이들은 의복을 통해 다른 게이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동성에 성향(gayness)³⁶⁾을 드러낸다.

19세기 말 성 연구가이자 동성애 운동가인 마그누스 히르슈펠트는 게이를 '남자의 육체에 갖든 여장 영혼'³⁷⁾이라고 설명하였다. 게이는 여성스럽고 나약한 이미지의 소유자라는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자, 게이들은 여성스러운 손짓과 옷차림으로 일부러 선택하여 다른 게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여성스러운 옷차림, 화장법은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다른 게이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게이의 동성에 성향(gayness)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이 되는 패션 아이템은 여러 가지가 있다. 19세기 말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동성애자 그룹은 녹색의 카네이션을 달아 정체성을 비밀스럽게 표현하였다.³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뉴욕에서는 하얀색 장갑과 빨간색 넥타이가 게이 정체성의 표시였다.³⁹⁾ 이외에 가늘게 그린 눈썹, 긴 머리, 털 코트, 새틴 소재의 셔츠, 화려한 칼라의 옷차림, 타이트하게 맞는 바지 등의 여성스러운 느낌이 가미된 남성복과 함께 여성스러운 손짓, 목소리, 걸음걸이 등이 게이 정체성의 징표가 되었다.⁴⁰⁾ 특정한 의복 아이템은 자신의 성적인 유효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는 자신이 게이이며 성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이용되었다.⁴¹⁾ 이와 같이 게이들은 공유된 게이 자아 정체성 단계에서 그들이 약속한 특정 패션 아이템을 선택함으로써, 동성애자임(gayness)을 드러내고 다른 게이들과 소통하고 있다.

2) 종족적인 자아 정체성(Tribal Identity)

동성애 집단이 1980년대 이후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하위문화 그룹이라고 하는 종족(tribes)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각각의 하위문화 그룹들은 그들만의 스타일과 행동방식, 법칙, 신념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각각 독특한 옷차림을 착용하였다.⁴²⁾ 게이들은 종족적인 자아 정체성(tribal identity)의 단계에서 각 종족에서 합의한 의복을 입어 소속감을 증명하고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다른 게이들과 어울리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Cole, Shaun은⁴³⁾ 게이들의 종족을 3가지 가장 주요 그룹인 드래그(drag)그룹, 유미주의(Aesthete)그룹, 비(非)가시(Invisible)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각 그룹마다 다양한 종족들을 포함한다.

드래그(Drag) 그룹은 퀸즈(Queens), 페어리(Fairies) 등을 포함한 그룹으로 여성복을 착용하고, 여성스러운 몸짓과 화장을 하는 의복 형태를 보인다. 이들은 자아 정체성과 자아 표현을 중요시 여기고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뽐내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동성애자들 내에서의 사회화를 즐긴다고 한다.⁴⁴⁾

유미주의(Aesthetes)그룹에는 캠프(Camp), 테디 보이(Teddy boys), 카우보이(Cowboys), 바이커(Bikers), 클론(Clones) 등의 종족이 포함된다.⁴⁵⁾ 캠프, 테디 보이와 같은 종족은 몸에 꼭 맞는 여성성이 가미된 남성복을 착용한다. 화려한 칼라와 소재, 액세서리 등을 사용한 여성화가 된 남성복의 착용을 즐긴다. 카우보이, 바이커, 클론, 유니폼과 해군(Uniform and Marines) 등의 그룹은 전통적인 남성상인 카우보이, 바이커, 노동자, 군인과 같은 남성만의 공동체에서 파생되었다. 이 종족들은 모든 게이는 여성스럽다는 편견의 반작용으로 생겨났는데, 카우보이 복장, 징이 많이 박힌 가죽 재킷, 해군 유니폼, 노동자의 작업복과 같이 건장한 남성들이 주로 입는, 남성의 근육질의 몸매를 잘 드러나는 남성복을 주로 착용한다.

마지막으로 비(非)가시(Invisible)그룹은 1960년대의 히피(Hippies),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펑크(Punk) 등의 하위 종족이 포함되는데 주류 남성 패션의 트렌드를 따르는 의복을 선택한다. 가장 주류 이성애자 사회에 침투해 있으며 일과 가정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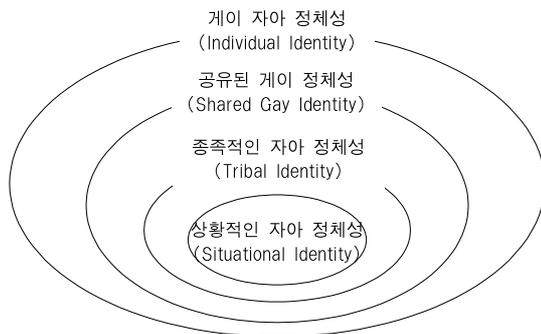
종족적인 자아 정체성(tribal identity)단계에서는 하위 종족에 따라 다양한 의복 형태가 보이며, 의복은 종족의 뜻을 따른다는 신념과 소속감을 나타내는 시각적인 코드로 사용이 된다. 개인을 집단에 소속시키고 융합시키는 수단으로써, 집합적인 종족의 정체성을 형성한다.⁴⁶⁾

3) 상황적인 자아 정체성(Situational Identity)

게이들은 상황적인 자아 정체성(Situational Identity)의 단계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유연하고 선택적인 의복 선택을 보여 준다. 주류 패션 트렌드에 맞는 의복을 착용하여 사회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가고, 의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능동적으로 연출한다. 이 단계에서 의복은 '다중의 정체성(multiple identities)'⁴⁷⁾을 연기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준다. 이성애자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해야 하는 게이들에게 의복은 중요한 도구가 된다. 게이들은 사적인 영역, 게이 커뮤니티 영역과 다수의 이성애자와 함께 생활하는 영역에 따라 다른 의복을 착용하여 여러 가지 자아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Schofield, Schmidt의 게이 자아 정체성의 단계는 <표 1>⁴⁸⁾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Schofield, Schmidt의 게이 자아 정체성 표현의 단계



Ⅲ. 미국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에 나타난 게이들의 의복 고찰

‘꿈의 시장’⁴⁹⁾이라는 떠오르는 새로운 소비 계층이며, 남성 패션의 트렌드 세터인 게이들의 복식에 대한 연구는 가시성이 높은 드래그(Drag)와 같은 하위 문화 패션에 관한 연구⁵⁰⁾와 같은 세부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에 나온 게이 등장인물들의 의복을 상황과 함께 살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이들의 의복을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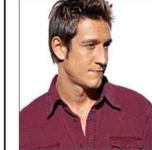
1. 미국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는 동명의 영국 드라마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미국, 캐나다의 TV 드라마 시리즈로 2000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5개의 시즌에 걸쳐서 방영되었다.⁵¹⁾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에 사는 6명의 게이: 브라이언

언(Brian)<그림 1>⁵²⁾, 마이클(Michael)<그림 2>⁵³⁾, 저스틴(Justin)<그림 3>⁵⁴⁾, 에멧(Emmett)<그림 4>⁵⁵⁾, 테드(Ted)<그림 5>⁵⁶⁾, 벤(Ben)<그림 6>⁵⁷⁾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커밍아웃(Coming out), 동성 간의 결혼, 동성에 커플의 입양, 마약 복용, HIV 보균자, 미성년자 매춘, 성적 소수자의 직장 내 차별, 인터넷 포르노 산업 등 게이들의 삶에 대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드라마의 제목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는 “사람들처럼 이상한 것은 없다(There’s nothing as queer as folk.)”라는 영국의 속담 유래되었다.⁵⁸⁾ ‘퀴어(Queer)’라는 표현은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고 있는데, Tamagne에 따르면⁵⁹⁾ 동성애자들은 ‘이상한 사람’, ‘별난 사람’ 혹은 ‘정신병자’를 가리키는 ‘퀴어’라는 용어를 동성애자로 스스로 지칭하면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극중의 주인공들은 30대의 광고회사 중역, 만화가게 운영인, 포르노 스타, 회계사, 17세의 청소년, 대학교수

<표 2>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의 주요 등장인물과 특징

등장인물						
	<그림 1> 브라이언 - http://www.sho.com/	<그림 2> 마이클 - http://www.sho.com/	<그림 3> 저스틴 - http://www.sho.com/	<그림 4> 에멧 - http://www.sho.com/	<그림 5> 테드 - http://www.sho.com/	<그림 6> 벤 - http://www.sho.com/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한 광고회사 중역. 피츠버그 게이 사회에서 인기가 많으며 자유로운 섹스를 즐김. 레즈비언 친구 린지에게 정자를 제공해 아들 거스를 낳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마트에서 일하다가 만화 가게를 운영. 후에 저스틴과 만화 ‘Rage’를 만들어냄. 후에 HIV 보균자인 벤과 결혼 레즈비언 친구 멜라니에게 정자를 제공해 딸 제니를 낳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세 미술학도로 커밍아웃을 하고 정체성을 찾아감. 브라이언과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연인 관계 유지. 미술학도로 후에는 인기 동성애 만화 ‘Rage’를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 의류매장 판매원, 나체 가정부, 포르노 스타, 파티 플래너, 방송국 리포터 등 다양한 직업 전전. 화려한 패션 센스 선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회계사. 게이 포르노를 사무실에서 보다가 해고당한 후에 스스로 게이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운영. 약물 중독에 빠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수 HIV 보균자 마이클과 후에 결혼하며 HIV 보균자 현터를 입양함.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게이들로 주요 특징은 <표 2>와 같다.

2. 미국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에 나타난 게이들의 의복 고찰

게이들의 의복을 고찰하기 위하여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복식 총 630점을 분석하였다. 등장인물들은 서로 다른 직업, 성격, 패션 취향의 소유자로 다양한 의복을 착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찰된 등장인물 별 의복의 수는 각각 브라이언(Brian) 142점(22.5%), 에멧(Emmett) 140점(22.2%), 마이클(Michael) 124점(19.7%), 테드(Ted) 95점(15.1%), 저스틴(Justin) 62점(9.8%), 벤(Ben) 39점(6.2%), 기타 등장인물 28점(4.4%)이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개인의 취향, 성격, 직업,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이 착용하였는데, Schofield, Schmidt⁶⁰의 게이 자아 정체성 표현의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드라마의 주요 배경은 다수의 이성애자와 생활하는 공적인 영역, 일상적인 동성애자 커뮤니티, 게이만의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인 영역은 직장, 거리, 일반 식당과 같이 동성애자임(gayness)을 특별히 밝히지 않는 영역과 공청회, 게이 퍼레이드와 같이 동성애자 권리 주장을 위한 영역으로

나뉜다. 일상적인 동성애 커뮤니티는 게이 바(gay bar), 운동 클럽, 식당, 집과 같이 게이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영역이다. 게이만의 사적인 영역은 그들이 성적인 어필을 통해 파트너를 찾는 은밀한 장소로 나이트클럽 바빌론(Babylon)이나 게이 포르노 촬영장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배경별 의복의 수는 일상적인 동성애자 커뮤니티 310점(49.2%), 직장, 거리, 일반 식당 195점(31.0%), 게이만의 사적인 영역 111점(17.6%), 동성애 권리 주장을 위한 영역 14점(2.2%)이었다.

1) 공유된 게이 자아 정체성(shared gay identity) 단계

Cole⁶¹에 따르면 19세기 말부터 게이는 동성애 성향(gayness)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패션 아이템을 착용해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을 밝히고, 성적인 파트너를 찾았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⁶²고 하는데, 동성애자는 일반인은 인식할 수 없으나, 그들 사이에서는 통용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개발해 왔다. 20세기 전반에는 여성스러운 느낌이 가미된 남성복, 여성스러운 손짓, 목소리, 걸음 걸이 등이 동성애자임을 암시하는 단서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게이는 여성스럽다는 편견에 대한 반작용으로 남성적인 패션 아이템이 동성애 성향의 표

<표 3>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에서 나타난 공유된 자아 정체성(Tribal Identity) 단계

공유된 자아 정체성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					
	청바지	탱크탑	가죽 재킷	보머 재킷	체크 셔츠
〈퀴어 애즈 포크〉 등장인물의 복식					
	〈그림 7〉 흰색 티와 청바지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4, 09회 캡처	〈그림 8〉 스킨헤드와 탱크 탑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4, 03회 캡처	〈그림 9〉 가죽 보머 재킷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3, 08회 캡처	〈그림 10〉 보머 재킷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5회 캡처	〈그림 11〉 체크 셔츠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22회 캡처
빈도	68	42	63	55	8

식이 되었다. 1950년대 제임스 딘(James Dean), 말론 브랜도(Marlon Brando)에게 영감을 받아 리바이스 501 청바지, 흰색 티셔츠에 가죽 재킷 또는 보머 재킷(Bomber jacket)을 착용하는 것이 새로운 유니폼이 되었다. 이밖에 게이 성향을 밝히는 상징적인 패션 아이템은 근육질의 노동자 패션에서 파생된 짧게 깎은 스킨헤드(Skin-head), 닥터 마틴 부츠(Doctor Martens), 체크 셔츠, 탱크 탑(Tank top)이 있다.⁶³⁾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에서 공유된 게이 자아 정체성인 동성애 성향을 밝히는 패션 아이템이 <표 3>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청바지는 주요 하의 의복으로 68점 등장하였는데, 타이트하지도 너무 헐렁하지도 않는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Regular straight fit)'의 리바이스 501 스타일<그림 7>이 주로 고찰되었다. 몸에 잘 맞는 탱크 탑<그림 8>은 팔 근육과 가슴 근육을 강조하여 남성의 관능미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옷으로 총 42점 등장하고 있다. 이외 겉옷으로 가죽 재킷<그림 9> 63점, 보머 재킷<그림 10> 55점, 체크 셔츠<그림 11> 8점이 등장하고 있다. '퀴어 애즈 포크'의 등장인물들은 동성애 성향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주요 아이템인 탱크 탑, 가죽 재킷, 보머 재킷, 리바이스 청바지, 체크 셔츠를 즐겨 입어 공유된 게이 자아 정체성 단계의 의복 생활을 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2) 종족적인 자아 정체성(Tribal Identity)

게이 집단들은 여성 옷차림이나 여성스러운 화려한 칼라의 옷을 즐긴다는 일반적인 편견과는 달리 종족 별로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하고 종족적인 자아 정체성을 드러낸다.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의 등장인물들의 의복을 고찰해 본 결과 4개의 두드러진 의복 스타일인 드래그(Drag), 마초적 남성복(Macho Look), 양성적 남성복(Androgynous Look), 전통적 남성복(Conventional Look)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등장한 스타일별 의복의 수는 각각 드래그(Drag) 19점(3.0%), 마초적 남성복(Macho Look) 107점 (17.0%), 양성적 남성복(Androgynous Look) 256점(40.6%), 전통적 남성복(Conventional Look) 248점(39.4%)이었다.

(1) 드래그(Drag)

드래그(Drag)는 이성의 의복 착용을 뜻하는데, 여성의 복장을 한 남성 동성애자⁶⁴⁾를 드래그 퀸(Drag Queen)이라고 한다. 게이 클럽의 무대에서 여장을 하고 여성의 흉내를 내며 흥을 돋우는 게이 연예인들의 의복 형태⁶⁵⁾이다. 노출이 과하거나, 반짝거리는 화려한 의상, 진한 화장 등 과장된 여성의 복식은 가시성이 높아, 게이 동성애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인 의복 형태이다. 주로 영화배우나 가수와 같은 인기스타들이나 클레오파트라 등과 같은 역사 속의 유명인의 외모를 패러디해 즐거움을 준다.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에는 총 19점의 드래그 의복이 등장하였다. 이중 13점은 클럽에서 사회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는 연예인들이 착용하였는데 마를린 먼로<그림 12>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그림 13>와 같이 유명한 여류 인사를 모방하거나 1950년대의 여성의 패션 스타일과 같이 여성성이 돋보이는 의복을 입었다. 주인공 에멧(Emmett)은 <그림 14>와 같이 생일 파티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드래그를 해서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이때 여장은 일탈을 통해 착용자인 본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보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해방감을 주고 있었다. 이밖에 주인공에 의한 드래그는 동성애 해방 운동과 관련되어 일어났는데 <그림 15>와 같이 게이 권리문제를 위한 정치 기금 마련 파티나, <그림 16>와 같이 게이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을 때 나타났다. 게이는 이성애자에게 당당히 '커밍아웃(Coming out)'을 하고 주류사회에 대해 자신들의 단결력을 과시하는데 드래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2) 마초적 남성복(macho Look)

최초의 게이 운동가로 알려진 칼 하인리히 울리히는 게이를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⁶⁾ 1980년대에 게이 지니친 여성성에 대한 극단적인 반작용으로 짧은 머리, 콧수염, 근육질의 몸, 카우보이나 공사장 인부 복장, 경찰복, 군복 등 지나친 남성성, 마초성이 가미된 새로운 스테레오타입이 등장하게 되었다.⁶⁷⁾ 카우보이, 군인, 노동자, 소방관, 경찰은 남성들만의 폐쇄적인 사회에서 긴밀한 인간관

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동성애를 상징하고 있다.⁶⁸⁾ 게이 이는 군복, 경찰복과 같은 유니폼이나 카우보이 복장, 바이커 복장 등 남성성을 상징하는 의복을 착용하여 강한 남성미를 드러내고 있다. 마초적 이미지의 남성복은 게이가 동경하는 강한 남성상에 대한 취향을 드러내며,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의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퀴어 애즈 포크'에는 107점 (17.0%)의 마초적 남성복이 나타났다. 오버롤즈와 같은 노동자의 복장<그림 17>, 경찰복<그림 18>, 카우보이 복장<그림 19>, 사이클 선수복, 소방관의 유니폼, 해군복과 같은 마초적 남성복은 게이만의 사적인 공간인 클럽에서 나타났다. 주로 댄서들이 착용하였다. 몸에 꼭 맞거나, 상체를 드러내는 반라의 형태의 마초적 남성복은 남성의 육체미를 드러내 관능성을 가지며, 남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었다. 등장인물의 마초적 남성복으로는 가죽 재킷<그림 20>이나 바이커 족의 가죽 조끼<그림 21>, 슬리브리스 셔츠, 러닝 탑, 카우보이 셔츠 등이 나타났다. 등장인물 중 브라이언(Brian)은 극중 게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마초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타이트한 러닝 탑을 입거나, 셔츠를 단추를 풀고 소매를 걷어 올려 입고 가슴 근육과 팔 근육을 노출해 남성의 육체미와 젊음을 과시하고 가죽 재킷을 함께 입어 반항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3) 양성적 남성복(Androgynous Look)

양성적 남성복은 여성성이 가미된 남성복을 뜻하며 남성 패션의 리더로서 자신의 몸을 가꾸고 패션을 중요시하는 게이들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 게이들은 주류 이성애자 사회에서 과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적대감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패션을 통한 표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성이 가미된 남성복이라는 절충적인 의복 형태를 선택하였다. 양성적 남성복은 전통적인 남성복 색상인 무채색, 블루 톤에서 벗어나 핑크, 오렌지와 같은 화려한 칼라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소재, 광택이 있는 소재, 비치는 소재, 패턴이 있는 소재와 같은 장식적인 소재로 만들어졌다. 실루엣은 몸에 잘 맞아 육체미를 드러내는데, 이는 자신감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타인

을 유혹하는 역할을 하였다.

'퀴어 애즈 포크'에는 총 256점(40.6%)의 양성적 남성복이 고찰되었다. <그림 22>와 같이 오렌지, 핑크, 레드, 버건디 같은 전통적인 여성적인 칼라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림 23>과 같은 타이트한 실루엣의 칼라 블로킹(color blocking)이 된 티셔츠가 많이 고찰되었다. 비치는 소재와 광택 있는 가죽 소재<그림 24>와 같이 전통적인 남성복에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소재가 기본적인 남성복 아이템에 여성성을 가미해 양성성을 표현하였다. 꽃무늬 패턴<그림 25>나 화려한 멀티 칼라 패턴<그림 26>은 단조로운 남성복에 다양성과 유희성을 더했다. 양성적 남성복은 일상적인 동성애 커뮤니티인 게이바(gay bar), 피트니스 클럽, 식당, 집과 사적인 영역인 클럽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등장인물 중 활발한 성격의 에멧(Emmett)이 의류매장 판매원, 포르노 배우, 파티플래너, 방송국 리포터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면서 화려한 양성적 남성복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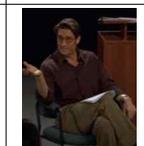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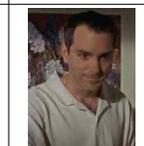
(4) 전통적 남성복(Conventional Look)

전통적 남성복은 교복, 테일러드 슈트, 셔츠와 넥타이, 플로셔츠 등 고전적인 남성복 아이템으로 주류 남성 이성애자와 함께 착용하는 옷이다. 게이들은 주류 이성애자 사회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동성애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전통적 남성복을 착용하고 있다. 전통적 남성복은 몸에 지나치게 붙지 않는 다소 여유로운 스타일이며 칼라나 소재의 선택에서도 무채색이나 뉴트럴 톤, 브라운, 블루 계열과 같이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에는 총 248점(39.4%)의 전통적 남성복이 고찰되었다. 총 255점(40.5%)의 양성적 남성복(Androgynous Look)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등장인물들은 학생, 광고 회사 중역, 마트의 판매원, 교수라는 직업에 따라 교복<그림 27>, 테일러드 슈트<그림 28>, 셔츠와 넥타이<그림 29>, 셔츠와 면바지<그림 30> 등 남성 이성애자와 구별되지 않는 전통적 남성복을 착용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외에 클래식한 스포츠 웨어 아이템

게이 자아 정체성에 따른 게이 의복 특성

〈표 4〉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에서 나타난 종족적인 자아 정체성(Tribal Identity) 단계

그룹	구분/ 의복수	〈퀴어 애즈 포크〉 등장 인물의 복식					패션 아이템
드래그 그룹	드래그 (Drag) / 19점 (3.0%)						여성복 가발 진한 화장 화려한 칼라 반짝거리는 소재 과장
		〈그림 12〉 드래그 퀸의 마블린 먼로를 패러디한 복장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20회 캡처	〈그림 13〉 드래그 퀸의 영국 엘리자 베스 1세를 패러디한 복장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20회 캡처	〈그림 14〉 에멧의 게이샤 복장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2, 16회 캡처	〈그림 15〉 에멧의 재클린 케네디을 패러디한 복장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17회 캡처	〈그림 16〉 케이 퍼레이드 중 마이클의 스팽글 소재 드레스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2, 04회 캡처	
유미 주의 그룹	마초적 남성복 (Macho Look) / 107점 (17.0%)						노동자 작업복 (오버롤즈, 런닝셔츠, 닥터 마킨 신발) 유니폼(경찰복, 소방관, 군복) 카우보이 복장 (모자, 조끼, 가죽 바지) 바이커(가죽 보머 재킷, 조끼, 가죽 모자) 남성 속옷, 반라
		〈그림 17〉 나이트 클럽 바빌론의 노동자 복장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1회 캡처	〈그림 18〉 나이트 클럽 바빌론의 경찰복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1회 캡처	〈그림 19〉 나이트 클럽 바빌론의 카우보이 복장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18회 캡처	〈그림 20〉 가죽 보머 재킷과 체크 셔츠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2, 15회 캡처	〈그림 21〉 바이커 쪽의 가죽 조끼와 탱크 탑, 가죽 모자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3, 01회 캡처	
비가시 (非可視) 그룹	양성적 남성복 (Andro- gynous Look) / 256점 (40.6%)						여성성이 가미된 남성복 몸에 꼭 맞는 실루엣 화려한 패턴 다채로운 칼라 광택이 있거나 비치는 소재
		〈그림 22〉 몸에 꼭 맞는 핑크색 저지 티셔츠와 광택이 있는 오렌지색 비닐바지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1회 캡처	〈그림 23〉 타이트하게 맞는 반팔 티.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6회 캡처	〈그림 24〉 비치는 소재의 패턴 셔츠와 패턴트 가죽 바지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17회 캡처	〈그림 25〉 핑크 꽃무늬 셔츠와 핑크 넥타이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4, 12회 캡처	〈그림 26〉 화려한 칼라의 플리스 재킷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4, 14회 캡처	
비가시 (非可視) 그룹	전통적 남성복 (Conven- tional Look) / 248점 (39.4%)						테일러드 슈트/교복 셔츠와 넥타이 폴로 셔츠 카키 면바지 뉴트럴 톤, 블루톤, 무채색 계열
		〈그림 27〉 교복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2회 캡처	〈그림 28〉 그레이 비즈니스 슈트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2회 캡처	〈그림 29〉 블루 셔츠, 그레이 넥타이와 카키 재킷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8회 캡처	〈그림 30〉 브라운 셔츠와 면바지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5, 06회 캡처	〈그림 31〉 베이지 색 폴로셔츠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4회 캡처	

인 폴로셔츠(그림 31)은 자존감이 낮은 캐릭터로 나오는 테드(Ted)가 일상적인 영역 뿐 아니라 클럽과 같은 게이만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착용하고 있었다. 끝까지 단추를 채워 입은 폴로셔츠는 테드(Ted)의 소심한 성격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전통적 남성복은 무지에 주로 회색, 브라운 계열, 네이비블루, 뉴트럴 톤 등 일반적인 남성복 칼라가 사용되어 동성애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고, 게이 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패션 아이템으로 거리, 직장, 학부모 회의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주로 고찰되었다.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에서 나타난 4개의 두드러진 의복 스타일인 드래그(Drag), 마초적 남성복(Macho Look), 양성적 남성복(Androgynous Look), 전통적 남성복(Conventional Look)을 주인공 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각 등장인물들은 취향과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드라마에서 광고회사 중역이며 가장 마초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브라이언(Brian)은 전통적인 남성복 73점(51.4%), 마초적인 남성복 56점(39.4%) 등 남성성이 높은 의복의 착용빈도가 높았다.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로 후에 방송국에서 게이 리포터로 활약하는 에멧(Emmett)의 경우는 양성적 남성복 122점(87.1%), 드래그 3점(1.6%) 등 여성화된 남성복을 주로 착용하고 생일 파티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에는 여장을 하였다. 만화가게를 운영하는 마이클(Michael)은 양성적

남성복 60점(48.4%), 전통적 남성복 47점(37.9%), 마초적 남성복 15점(12.1%), 드래그 2점(1.6%)을 착용하였으며 미술학도인 저스틴(Justin)은 양성적 남성복 30점(48.4%), 전통적 남성복 26점(41.9%), 마초적 남성복 5점(8.1%), 드래그 1점(1.6%) 등 비슷한 의복 선택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전통적 남성복의 착용을 통해 사회에 순응하고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양성적 남성복을 즐겨 착용하고 있다.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캐릭터인 테드(Ted)의 경우는 전통적인 남성복의 착용비율이 73점(76.8%)으로 가장 높았다. 온화한 성격의 대학교수인 벤(Ben)은 전통적 남성복 23점(59.0%) 착용하여 테드(Ted)에 이어 전통적인 남성복의 착용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취향과 직업을 반영한 의복을 착용하며 각자 다른 종족적인 자아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상황적인 자아 정체성(Situational Identity)

동성애자들은 주류 이성애자 사회에서 불필요한 적대감과 차별을 면하고,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동성애 정체성을 가시화, 비(非)가시화하는 상황적인 자아 정체성(Situational Identity)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의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의 주요 배경은 직장, 거리, 일반 식당과 같이 동성애자임(gayness)

<표 5>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 주인공별 의복 스타일

		브라이언	에멧	마이클	테드	저스틴	벤	기타	계 빈도 (백분율%)
종족적 자아 정체성	드래그(Drag)	0 0%	3 2.1%	2 1.6%	0 0%	1 1.6%	0 0%	13 46.4%	19 3.0%
	마초적 남성복 (macho Look)	56 39.4%	9 6.4%	15 12.1%	3 3.2%	5 8.1%	6 15.4%	13 46.4%	107 17.0%
	양성적 남성복 (Androgynous Look)	13 9.2%	122 87.1%	60 48.4%	19 20.0%	30 48.4%	10 25.6%	2 7.1%	256 40.6%
	전통적 남성복 (Conventional Look)	73 51.4%	6 4.3%	47 37.9%	73 76.8%	26 41.9%	23 59.0%	0 0%	248 39.4%
	계	빈도 (백분율)	142 100%	140 100%	124 100%	95 100%	62 100%	39 100%	28 100%

을 특별히 밝히지 않는 영역과 공청회, 게이 퍼레이드와 같이 동성애 권리 주장을 위한 영역과 같이 이성애자들과 함께 지내는 공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동성애자 커뮤니티, 게이만의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적인 동성애 커뮤니티는 게이 바(gay bar), 피트니스 클럽, 식당, 집과 같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영역이다. 게이만의 사적인 영역은 그들이 성적인 어필을 통해 파트너를 찾는 은밀한 장소로 나이트클럽 바빌론(Babylon)이 대표적이다. 주요 배경별 의복의 수는 일상적인 동성애자 커뮤니티 310점(49.2%), 직장, 거리, 일반 식당 195점(31.0%), 게이의 사적인 영역 111점(17.6%), 동성애 권리 주장을 위한 영역 14점(2.2%)이었다. 주인공과 주요 배경에 따라 등장한 의복의 빈도수를 정리한 것을 <표 6>과 같다.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에서 유혹적인 마초 캐릭터로 등장하는 브라이언(Brian)은 광고회사의 중역으로 직장과 같은 직장에서는 <그림 32>과 같은 테일러드 슈트 총 45점(76.3%)을 주로 입어 프로페셔널한 직장인의 면모를 보이며, 동성애 커뮤니티<그림 44>와, 사적인 영역인 클럽<그림 50>에서는 마초적 남성복을 각각 35점(54.7%), 11점(61.1%) 착용하여 다른 동성애자에게 성적 유효성을 알리고 있었다. 동성애자들에게 우호적인 상원위원 기금 마련 파티에는 비치는 소재의 뱀 무늬 셔츠와 반짝거리는 흰색 가죽 바지차림<그림 38>과 같은 양성적 남성복을 착용해 동성애 성향을 표현했다.

마이클(Michael)은 초반에 대형 마트의 매니저로 근무할 때에는 전통적 남성복인 셔츠와 넥타이<그림 33>을 26점(66.7%) 착용하였고, 이후 만화가게를 운영할 때는 칼라 블로킹된 티셔츠<그림 45>와 몸에 꼭 맞는 스웨터<그림 51>와 같은 양성적 남성복 12점(30.8%)을 착용하였다. 다른 이성애자 직장동료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위해서 게이 퍼레이드에 참여했을 때는 드래그 복장<그림 39>을 착용하여 당당히 동성애 정체성을 가시화하였다.

고등학생인 저스틴(Justin)은 공적인 영역에는 교복<그림 34>과 같은 전통적 남성복의 착용이 12점(66.7%) 나타났고, 일상적인 동성애 커뮤니티에서는

패션성이 가미된 남성복인 양성적 남성복<그림 46> 착용이 18점(60.0%)으로 두드러졌다. 동성애 권리주장을 위한 영역에서는 빨간 색 배꼽티와 같은 과감한 차림<그림 40>과 사적인 영역인 클럽에는 반라의 카우보이 차림<그림 52>을 하여 동성애 성향을 가시화하였다.

에멧(Emmett)은 동성애자임을 스스럼없이 밝히는 캐릭터로 가장 화려한 패션 센스를 보이고 있는데, 공적인 영역<그림 35>, 동성애 커뮤니티<그림 47>, 클럽<그림 53>에서 다양한 소재와 화려한 칼라의 다채로운 양성적 남성복 122점(87.1%)을 선보였다. 그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의 미적 취향을 드러내는 양성적 남성복의 착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생일 파티와 같은 특별한 행사나 동성애 권리 주장을 위한 파티 등에는 드래그<그림 41>를 하여 흥을 돋우는 엔터테이너의 역할을 하였다.

자존감이 낮아 우울증, 성형 중독, 약물 중독 등에 시달리는 테드(Ted)는 직장<그림 36>과 동성애 커뮤니티<그림 48>, 클럽<그림 54>에서 총 72점(75.8%)의 전통적 남성복을 착용하였다. 동성애인(gayness)을 드러내지 않는 전통적 남성복의 선호는 소심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밖에 동성애 해방과 관련된 파티에는 <그림 42>과 같은 바이커 복장을 착용하여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대학 교수인 벤(Ben)도 테드(Ted)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영역<그림 37>과 동성애 커뮤니티<그림 49>에서 주로 전통적 남성복을 23점(59.0%) 착용하여 전통적 남성복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관찰되었다. 벤(Ben)은 <그림 43>와 같이 청 트럭커 재킷과 누트럴 톤의 티플넥 스웨터와 같은 전통적인 남성복을 착용하여 차분하게 동성애자 차별법의 폐지를 위한 운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클럽 바빌론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벤(Ben)은 슬리브리스 탑이나 반라<그림 55>차림과 같은 마초적 남성복을 5점(100.0%) 선보여 남성미를 과시하였다.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의 주인공들은 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주류 이성애자 사회인 직장, 거리, 일반 식당에 있을 때, 동성애 해방 운동과 같은 동성애 권리 주장을 위한 행사가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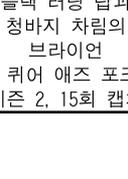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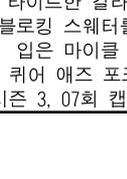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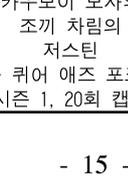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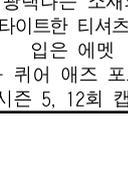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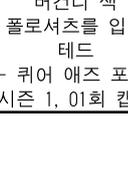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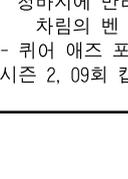
<표 6>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의 주인공들의 주요 배경에 따른 의복 특성

상 황		공적인 영역				일상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계	
		직장, 거리, 일반식당		동성애 권리주장을 위한 영역		동성애 커뮤니티		나이트클럽, 바빌론			
착용자	종족별 자아정체성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브라이언	드래그	0	0.0	0	0	0	0.0	0	0.0	0	0.0
	마초적 남성복	10	16.9	0	0	35	54.7	11	61.1	56	39.4
	양성적 남성복	4	6.8	1	100	5	7.8	3	16.7	13	9.2
	전통적 남성복	45	76.3	0	0	24	37.5	4	22.2	73	51.4
	계	59	100.0	1	100	64	100.0	18	100.0	142	100.0
마이클	드래그	0	0.0	1	50	0	0.0	1	6.3	2	1.6
	마초적 남성복	1	2.6	0	0	6	9.4	8	50.0	15	12.1
	양성적 남성복	12	30.8	0	0	41	61.2	7	43.8	60	48.4
	전통적 남성복	26	66.7	1	50	20	31.3	0	0.0	47	37.9
	계	39	100.0	2	100	67	100.0	16	100.0	124	100.0
저스틴	드래그	0	0.0	0	0	0	0.0	1	8.3	1	1.6
	마초적 남성복	1	5.6	0	0	0	0.0	4	33.3	5	8.1
	양성적 남성복	5	27.8	2	100	18	60.0	5	41.7	30	48.4
	전통적 남성복	12	66.7	0	0	12	40.0	2	16.7	26	41.9
	계	18	100.0	2	100	30	100.0	12	100.0	62	100.0
에멧	드래그	0	0.0	1	33.3	1	1.3	1	3.4	3	2.1
	마초적 남성복	0	0.0	0	0.0	3	3.9	6	20.7	9	6.4
	양성적 남성복	30	96.8	2	66.7	68	88.3	22	75.9	122	87.1
	전통적 남성복	1	3.2	0	0.0	5	6.5	0	0.0	6	4.3
	계	31	100.0	3	100.0	77	100.0	29	100.0	140	100.0
테드	드래그	0	0.0	1	50.0	0	0.0	0	0.0	1	1.1
	마초적 남성복	1	3.2	0	0.0	1	2.0	0	0.0	2	2.1
	양성적 남성복	4	12.9	1	50.0	10	20.0	5	41.7	20	21.1
	전통적 남성복	26	83.9	0	0.0	39	78.0	7	58.3	72	75.8
	계	31	100.0	2	66.7	50	100.0	12	100.0	95	100.0
벤	드래그	0	0.0	0	0	0	0.0	0	0.0	0	0.0
	마초적 남성복	0	0.0	0	0	1	6.3	5	100.0	6	15.4
	양성적 남성복	3	17.6	0	0	7	43.8	0	0.0	10	25.6
	전통적 남성복	14	82.4	1	100	8	50.0	0	0.0	23	59.0
	계	17	100.0	1	100	16	100.0	5	100.0	39	100.0
기타 등장인물	드래그	0	0.0	2	66.7	3	50.0	8	42.1	13	46.4
	마초적 남성복	0	0.0	1	33.3	2	33.3	10	52.6	13	46.4
	양성적 남성복	0	0.0	0	0.0	1	16.7	1	5.3	2	7.1
	전통적 남성복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0	0.0	3	100.0	6	100.0	19	100.0	28	100.0
총계 빈도 (백분율 %)		195 (31.0%)		14 (2.2%)		310 (49.2%)		111 (17.6%)		630 (100%)	

때, 일상적인 동성애자만의 커뮤니티에 있을 때, 사적인 영역인 클럽에 있을 때 각각 탄력적으로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것이 고찰되었다. 직장과 같은 이성애자와 생활하는 영역에서는 주류 이성애자 남성들과 같이 전통적 남성복을 착용하여 동성애자임을

을 밝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능숙하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동성애 커뮤니티에서는 양성적 남성복과 마초적 남성복을 착용하여 자유롭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성적 어필이 필요한 사적인 영역이나 동성애 해방

<표 7>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에서 나타난 상황적인 자아 정체성(Situational Identity)의 단계

등장 인물	브라이언	마이클	저스틴	에멧	테드	벤
공적 인 영역	 <그림 32> 회색 테일러드 슈트와 넥타이 차림의 브라이언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3, 06회 캡처	 <그림 33> 와이셔츠와 넥타이 차림의 마이클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2회 캡처	 <그림 34> 교복을 입은 고교생 저스틴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2회 캡처	 <그림 35> 핑크셔츠와 정장 바지의 에멧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2, 02회 캡처	 <그림 36> 테일러드슈트와 코트를 착용한 회계사 테드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4, 12회 캡처	 <그림 37> 코듀로이 재킷과 민트 색 셔츠를 착용한 벤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4, 11회 캡처
	 <그림 38> 뱀무늬 비치는 소재의 셔츠와 흰색 에나멜 가죽 바지차림의 브라이언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17회 캡처	 <그림 39> 반짝이 드레스를 입고 게이 퍼레이드에서 참가한 마이클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2, 04회 캡처	 <그림 40> 빨간색 배꼽티와 흰색 바지 차림의 저스틴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17회 캡처	 <그림 41> 재클린 케네디를 패러디한 드래그 차림의 에멧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17회 캡처	 <그림 42> 바이커 족의 차림을 한 테드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17회 캡처	 <그림 43> 청 트럭커 재킷과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동성애자 차별법 반대 시위 중인 벤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5, 10회 캡처
일상적 인 영역	 <그림 44> 가죽재킷과 풀어헤친 셔츠, 청바지 차림의 브라이언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12회 캡처	 <그림 45> 타이트한 칼라 콤비가 된 티셔츠 차림의 마이클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22회 캡처	 <그림 46> 그린과 아이보리 칼라 배색의 보머 재킷과 청바지를 입은 저스틴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3, 05회 캡처	 <그림 47> 화려한 패턴의 셔츠를 입은 에멧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5, 12회 캡처	 <그림 48> 검은색 폴로넥 스웨터 차림의 테드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5, 03회 캡처	 <그림 49> 브라운 가죽재킷과 스트라이프 스웨터를 입은 벤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4, 05회 캡처
	 <그림 50> 블랙 러닝 탑과 청바지 차림의 브라이언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2, 15회 캡처	 <그림 51> 타이트한 칼라 블로킹 스웨터를 입은 마이클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3, 07회 캡처	 <그림 52> 카우보이 모자와 조끼 차림의 저스틴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20회 캡처	 <그림 53> 광택나는 소재의 타이트한 티셔츠를 입은 에멧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5, 12회 캡처	 <그림 54> 버건디 색 폴로셔츠를 입은 테드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1회 캡처	 <그림 55> 청바지에 반라 차림의 벤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2, 09회 캡처
사적 인 영역	 <그림 50> 블랙 러닝 탑과 청바지 차림의 브라이언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2, 15회 캡처	 <그림 51> 타이트한 칼라 블로킹 스웨터를 입은 마이클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3, 07회 캡처	 <그림 52> 카우보이 모자와 조끼 차림의 저스틴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20회 캡처	 <그림 53> 광택나는 소재의 타이트한 티셔츠를 입은 에멧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5, 12회 캡처	 <그림 54> 버건디 색 폴로셔츠를 입은 테드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1, 01회 캡처	 <그림 55> 청바지에 반라 차림의 벤 - 퀴어 애즈 포크, 시즌 2, 09회 캡처

운동과 같은 공적인 행사에는 가시성이 높고 동성애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드래그와 마초적 남성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V. 결론

20세기 후반 침묵과 검열, 금기의 동성애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TV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 광고 등 대중매체는 동성애자를 소재로 다루어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혐오감을 감소시켰다. 사회 각 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인사들의 커밍아웃은 게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성애자를 혐오나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게이들은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등 많은 영역에서 활약하여 그들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현대 패션 산업에서의 게이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외모에서 부각되는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적극적이므로 패션 산업의 중요한 소비자로서 급부상하였고,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 게이임을 밝히면서 패션의 창조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게이들은 파격과 도발적인 의복 활동으로 현대 패션과 남성 패션에 좋은 영감의 원천이 되며, 게이 마켓은 패션 산업의 꿈의 시장⁶⁹⁾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게이들의 의복 특성을 연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chofield, Schmidt는⁷⁰⁾ 게이들은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써 의복을 사용한다고 밝히며 게이들의 의복 선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게이들의 개인 자아 정체성(individual identity)은 공유된 게이 자아 정체성(shared gay identity)단계, 종족적인 자아 정체성(tribal identity)단계, 상황적인 자아 정체성(situational identity)단계에 맞추어 표현된다고 밝혔다. 게이들은 동성애 성향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을 착용해 다른 게이들과 소통을 하고, 개인의 취향, 본인이 속한 동성애자 하위그룹의 의상 코드를 차용해 개성을 드러내며, 이성애자 사회와 동성애자 사회에 모두 적응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복수의 정체성⁷¹⁾을 연출하는 것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에 나타난 630점의 게이들의 의복을 고찰하였다. 6명의 주인공은 광고회사 중역, 회계사, 교수, 고등학생, 만화 가게 주인, 방송국 리포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드라마의 주요 배경은 다수의 이성애자와 생활하는 공적인 영역, 동성애 권리 주장을 위한 영역, 일상적인 동성애자 커뮤니티, 남성 동성애자만의 사적인 영역인 나이트클럽이었는데, 게이 자아정체성 단계에 따라 다양한 의복 활동이 고찰되었다.

공유된 게이 자아 정체성(shared gay identity)단계에서는 '퀴어 애즈 포크'의 등장인물들은 동성애 성향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주요 아이템인 탱크 탑, 가죽 재킷, 보머 재킷, 리바이스 청바지, 체크 셔츠를 즐겨 입으며 다른 게이들에게 성적 유효성을 소통하고 있었다.

종족적인 자아 정체성(tribal identity)단계에서 드라마에 나타난 게이들의 의복 고찰 결과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드래그(Drag) 19점(3.0%), 마초적 남성복(Macho Look) 107점(17.0%), 양성적 남성복(Androgynous Look) 256점(40.6%), 전통적 남성복(Conventional Look) 248점(39.4%)이 등장하였다. 흔히 게이들의 패션 스타일이라고 생각되는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양성적 남성복뿐만 아니라 전통적 남성복과 마초적 남성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서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드래그(Drag)는 게이 클럽의 엔터테이너가 주로 착용하였고, 등장인물의 드래그는 게이 퍼레이드나 동성애 권리 확대 기금 마련 행사와 같은 동성애 해방 운동과 관련된 특별한 행사 등에서 나타났다. 남성의 여성복 착용은 일탈에 의한 유희를 주며, 동성애 해방 운동에서는 높은 가시성으로 홍보의 효과를 주고 있었다.

마초적 남성복은 총 107점(17.0%) 등장하고 있는데, 강인한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카우보이 의상, 바이커의 복장, 군복, 작업복 등을 입어 그들이 동경하고 사랑하고 싶은 강한 게이에 대한 취향을 드러내며 게이들의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고 있었다.

양성적 남성복은 여성성이 가미된 남성복의 의복 형태로 나타나는데 남성성과 여성성, 안전과 도발이

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복식 형태로 드라마에서는 총 256점(40.6%)이 등장하였는데, 몸에 꼭 맞는 실루엣과 장식적인 재질, 화려한 칼라의 소재를 통해 미적 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동성에 커뮤니티, 사적인 영역 클럽 등에서 주로 고찰되었다.

전통적 남성복은 총 248점(39.4%) 등장해, 양성적 남성복 다음으로 많이 관찰되었다. 등장인물들은 직장, 거리, 가게, 학부모 회의와 같은 주류 비이성애자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일반 남성 패션의 의복을 착용해 사회적인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라 벤(Ben), 테드(Ted)와 같은 등장인물들은 공적인 영역, 동성에 커뮤니티에서 모두 전통적 남성복의 착용을 즐기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상황적인 자아 정체성(Situational Identity) 단계에서 게이 의복을 고찰한 결과 이들은 상황에 맞게 의복을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직장, 거리, 일반식당과 같은 영역, 동성에 권리 주장하는 공적인 행사, 동성에 커뮤니티, 사적인 영역인 클럽 등 상황에 맞게 다른 의복을 착용함이 고찰되었다.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의 등장인물들은 의복을 동성에 성향을 드러내거나 숨기는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개성과 취향,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의복 선택을 하고 있었다. 게이들은 '남자의 육체에 깃든 여장 영혼'⁷²⁾이므로 주로 여성성이 가미된 양성적 남성복을 주로 착용할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전통적인 남성복의 착용 빈도도 39.4%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보수적인 성향 또는 성공적인 사회생활 참여의 결과였다. 이에 따라 패션에 민감하고 높은 구매력을 가진 게이들을 위해 양성적 남성복뿐만 아니라 전통적 남성복의 디자인 강화가 현대 남성 패션에서 중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다.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에 나타난 게이들의 의복 특성을 고찰한 결과 게이들은 게이 자아정체성을 다양한 의복을 통해 드러내거나 감추어 주류의 이성애자 사회의 편견 속에서 슬기롭게

적응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있으며, 개성 있는 옷차림을 통해 즐거운 생활을 영위함을 알 수 있었다. 게이들은 현대 패션 산업에서 무한한 창조력과 놀라운 구매력을 지닌 패션 리더이며,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하위문화 그룹으로 그들의 복식을 고찰하는 것이 게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Tamagne, Floerence (2001), *Mauvais Genre? : Une Histoire des représentations de l'homosexualité*, 이상민 역 (2007), *동성애의 역사*, 서울: 이마고, p. 191.
- 2) Wardlow, Daniel L. (1996), *Gays, Lesbians, and Consumer Behavior: Theory, Practice, and Research Issues in Marketing*, New York : Haworth, p. 1.
- 3) Irie, Atsuhiko (2008), *게이·마네가英國經濟を支える!?*, 김정환 역 (2009), *핑크머니 경제학*, 서울: 스펙트럼북스, pp. 20-21.
- 4) Schofield, Kate & Schmidt, Ruth A. (2005), Fashion and Clothing : the construction and communication of gay ident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tail & Distribution Management*, 33(4), p. 311.
- 5) 이정욱 외 (2003), 남성동성애자의 성 역할에 따른 의복태도 및 선호, *한국의류학회지*, 27(6), p. 697.
- 6) Irie, Atsuhiko, *op. cit.*, p. 18.
- 7) 최경희, 김민자 (2007), 현대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I), *복식*, 57(2), pp. 190-201.
- 최경희, 김민자 (2007), 현대패션에 표현된 다원적 성에 관한 사회기호학적 분석(II), *복식*, 57(4), pp. 126-142.
- 권정숙 (2008), 패션에 표현된 네오젠더 개념의 특성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8(2), pp. 37-58.
- 8) 이민선 (2000),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송명진, 채금석 (2001),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327-338.
- 10) 방수란 (2007), 현대 남성모드를 통한 intersexuality (간성)의 연구, *한부문화*, 10(1), pp. 11-25.
- 11) 서은희 (2004), 남성 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간호섭 (2000), Drag Queen 服飾에 關한 研究, *한국패션비즈*, 4(2), pp. 69-83.
- 13) 정세희, 양숙희 (2004), 드랙퀸(Drag Queen)과 드랙킹(Drag King)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 54(7), pp. 135-150.
- 14) 이정욱 외, *op. cit.*, pp. 696-704.
- 15) 이은실, 이명희 (2001), 성 지향 및 불안심리에 따른 의복태도와 의복선호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 pp. 424-435.
- 16) Schofield, Kate & Schmidt, Ruth A., *op. cit.*, pp. 310-323.
 - 17) "Queer as Folk (2000 TV series)", 자료 검색일 2011. 10. 12. [http://en.wikipedia.org/wiki/Queer_as_Folk_\(North_American_TV_series\)](http://en.wikipedia.org/wiki/Queer_as_Folk_(North_American_TV_series))
 - 18) Marcus, Eric (1993), *Is it a choice? : answers to 300 of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gay and lesbian people*, 컴투게더 역 (2000), *커밍 아웃 : 동성애자에게 누구나 묻게 되는 300가지 질문과 대답*, 서울: 박영률 출판사, pp. 19-22.
 - 19) *Ibid.*, pp. 19-22.
 - 20) 최안드레아 (1997),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서울: 아미, pp. 199-201.
 - 21) 윤가현 (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p. 328.
 - 22) Tamagne, Floerence, *op. cit.*, pp. 20-25.
 - 23) *Ibid.*, p. 23.
 - 24) *Ibid.*, pp. 59-72.
 - 25) *Ibid.*, p. 85.
 - 26) *Ibid.*, pp. 139-155.
 - 27) *Ibid.*, p. 178.
 - 28) *Ibid.*, p. 183.
 - 29) 서은희, *op. cit.*, pp. 11-12.
 - 30) Marcus, Eric, *op. cit.*, pp. 100-101.
 - 31) Tamagne, Floerence, *op. cit.*, p. 212.
 - 32) *Ibid.*, p. 214.
 - 33) Haslop, C., Hill, H. and Shmidt, R. (1998), The Gay Lifestyle-spaces for a subculture of consumption, *Marketing Intelligence and Planning*, 16(5), p. 318.
 - 34) Wardlow, Daniel L., *op. cit.*, p. 85.
 - 35) Schofield, Kate & Schmidt, Ruth A., *op. cit.*, pp. 310-323.
 - 36) *Ibid.*, pp. 314-320.
 - 37) Tamagne, Floerence, *op. cit.*, p. 87.
 - 38) Cole, Shaun (2000), *Don we now our gay apparel: Gay men's dress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New York: BERG, p. 4.
 - 39) Kyung-Hee Choi (2005), Fashion Images of Homosexuality depicted in Attitudes, FHM, and Arena Since 2000,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5(1), pp. 29-31.
 - 40) Cole, Shaun, *op. cit.*, pp. 31-43.
 - 41) Schofield, Kate & Schmidt, Ruth A., *op. cit.*, pp. 316-318.
 - 42) *Ibid.*, pp. 316-318.
 - 43) *Ibid.*, p. 315.
 - 44) *Ibid.*, p. 317.
 - 45) *Ibid.*, p. 317.
 - 46) *Ibid.*, p. 317.
 - 47) *Ibid.*, p. 319.
 - 48) *Ibid.*, p. 314.
 - 49) Wardlow, Daniel L., *op. cit.*, p. 1.
 - 50) 간호섭, *op. cit.*, pp. 69-83.
정세희, 양숙희, *op. cit.*, pp. 135-150.
 - 51) "Queer as Folk (2000 TV series)", 자료검색일 2011. 10. 12. [http://en.wikipedia.org/wiki/Queer_as_Folk_\(North_American_TV_series\)](http://en.wikipedia.org/wiki/Queer_as_Folk_(North_American_TV_series))
 - 52) 자료 검색일 2011. 10. 12. <http://www.sho.com/site/queer/brian.do>
 - 53) 자료 검색일 2011. 10. 12. <http://www.sho.com/site/queer/michael.do>
 - 54) 자료 검색일 2011. 10. 12. <http://www.sho.com/site/queer/justin.do>
 - 55) 자료 검색일 2011. 10. 12. <http://www.sho.com/site/queer/emmett.do>
 - 56) 자료 검색일 2011. 10. 12. <http://www.sho.com/site/queer/ted.do>
 - 57) 자료 검색일 2011. 10. 12. <http://www.sho.com/site/queer/ben.do>
 - 58) "Queer as Folk (2000 TV series)", 자료 검색일 2011. 10. 12. [http://en.wikipedia.org/wiki/Queer_as_Folk_\(North_American_TV_series\)](http://en.wikipedia.org/wiki/Queer_as_Folk_(North_American_TV_series))
 - 59) Tamagne, Floerence, *op. cit.*, p. 211.
 - 60) Schofield, Kate & Schmidt, Ruth A., *op. cit.*, pp. 310-323.
 - 61) Cole, Shaun, *op. cit.*, pp. 1-9.
 - 62) Schofield, Kate & Schmidt, Ruth A. *op. cit.*, p. 311.
 - 63) Cole, Shaun, *op. cit.*, pp. 169-178.
 - 64) 정세희, 양숙희, *op. cit.*, p. 137.
 - 65) 간호섭, *op. cit.*, p. 74.
 - 66) Cole, Shaun, *op. cit.*, p. 15.
 - 67) Tamagne, Floerence, *op. cit.*, p. 199.
 - 68) 송명진, 채금석, *op. cit.*, p. 332.
 - 69) 이정욱 외, *op. cit.*, p. 697.
 - 70) Schofield, Kate & Schmidt, Ruth A., *op. cit.*, pp. 310-323.
 - 71) *Ibid.*, p. 319.
 - 72) Tamagne, Floerence, *op. cit.*, p. 87.